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문 혜 신* 오 경 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의 측정도구를 구성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는 Beidel, Turner와 Morris(1993)의 아동용 사회 공포증 및 불안 척도와 LaGreca와 Stone(1993)의 개정판 아동용 사회 불안 척도를 번안한 내용을 기초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년 255명, 중학교 1-2년 221명, 고등학교 1-2년 273명이었다. 연구 결과,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는 수행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회피 행동 및 사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비주장성이라는 5개의 하위 요인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79 -.92였다. 또한, 타당도도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를 통해 초, 중, 고 남녀 학생의 사회 불안 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유용성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불안척도, 아동·청소년, 신뢰도, 타당도

아동 및 청소년기의 사회 불안은 사회적 기술 극단적인 사회 불안을 보이는 경우를 사회 공포의 발달을 저해하고, 사회생활에 심한 부적응을 증이라는 진단 범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초래하는 매우 유해한 요인이다. DSM-IV에서는 르면, 사회 공포증이란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문 혜 신 / 서울 강남구 도곡동 146-92 영동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
 FAX : 02-3497-2385 / E-mail : hyeshin65@hotmail.com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 상황에 대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 즉, 개인이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타인에 의해 주시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개인들은 자신들이 수치스럽거나 당혹스런 방식으로 행동할까봐(또는 불안 증상을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장애'로 정의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성인들의 회고적 보고에 따르면, 사회 공포증이 발병하는 시기는 평균적으로 중기 청소년기인 것으로 보이며, 대략 12.3세 경에 발병한다는 보고가 있다(Strauss & Last, 1993). 사회 불안이나 공포증은 대개 청소년기까지는 좀처럼 진단이 잘 내려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어린 아동의 경우, 주관적인 불편감과 사회적 맥락의 관련성을 파악해 낼만한 인지적 기술이 발달되지 못하였고, 청소년기에 이르러서야 사회적인 관계에 노출될 기회가 증대하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Morris & Masia, 1998). 외국의 경우, 지역 사회 표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도 대략 1.4%의 아동이 사회 공포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에도 자신의 보고로는 3.7%, 부모가 보고한 것으로는 6.3%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ssau, Conradt, & Peterman, 1999).

이와 같은 사회 공포증 및 사회 불안은 여러 가지 유해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아동 및 청소년기에 사회 불안을 보이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철수하고 친구관계를 잘 맺지 못하며, 학업 수행이 손상을 받거나 학교 거부증, 우울 및 기타 약물 남용의 문제까지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Beidel, 1991; Clark, 1993; Last, Hersen, Kazdin, Orvaschel, & Perrin, 1991), 아동 및 청소년기에 사회 불안을 보이는 경우 일생동안 이러한 장애를 유지할 정도로 만성적인 결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vidson, 1933; Schneier, Johnson,

Hornig, Liebowitz & Weissman, 1992; Wittchen, Essau, von Zerssen, Krieg, & Zaudig, 199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모나 교사로부터 좀처럼 주목을 받기 어렵고, 비록 이들이 사회 불안으로 학업이나 직업 기능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매우 극소수만이 치료를 받게 되고 따라서 이들은 치료 방법을 모르거나 도움을 받고자 하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에 비교적 오랜 기간을 불행감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사회 불안의 원인이나 치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서 사회 불안을 측정해 낼만한 적절한 도구가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기도 하였다(Beidel, Turner, & Morris, 1995).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성인기의 사회 불안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 불안을 보이는 성인들의 인지적 특성이나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기저의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연구 및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방법에 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남재, 1999; 김은정, 2000; 조용래, 1999). 그러나 아직까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 불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개발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성인기의 사회 불안 연구 결과들을 아동 및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하고 발달단계에 따른 사회 불안 양상의 유사점이나 차이점, 사회 불안이 미치는 발달적 영향 등 사회 불안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 불안을 평가하기 위해 이제까지 사용되어 온 방법은 크게 면접법과 자기 보고식 검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떠한 측정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연구의 대상이나 목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사회 공포증과 같은 임상적 진단법주의 확인을 위해서는 면접을 통한 증상의 측정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면접법은 대규모 표집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 불안을 연구하고자 할 때는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한다. 따라서,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자기 보고식 검사가 더욱 적절하리라 보인다.

사회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도구의 개발은 미국에서도 1980년대 후반에서야 시작되었으며, 최근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동용 사회 불안에 대한 측정치로는 개정판 아동용 사회 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Revised, SASC-R, LaGreca & Stone, 1993)와 아동용 사회 공포증 및 불안 척도(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AI-C, Beidel, Turner, & Morris, 1995)가 있다. 개정판 아동용 사회불안척도는 (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2) 전반적인 사회적 회피 및 불안 (3) 낯선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사회적 회피 및 불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아동이 느끼는 주관적인 사회불안의 경험을 측정하고 있는 반면(LaGreca & Stone, 1993), 아동용 사회 공포증 및 불안 척도는 (1) 자기 주장성 (2) 전반적인 대화에 대한 두려움 (3) 대중 앞에서의 수행 (4) 신체적 인지적 증상 및 (5) 행동적 회피라는 보다 사회 공포증 진단에 특징적인 구인을 측정하고 있다(Beidel, Turner, & Morris, 1995). 이 때문에 이 두 가지 척도는 연구 목적에 따라 치료 효과나 증상의 개선을 보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보다 구체적인 생리적, 인지적 행동적 증상을 평가하고 있는 아동

용 사회공포증 및 사회 불안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선발용(screening) 도구나 대규모 지역사회 표본을 대상으로 지표가 되는 변인(index variable)으로 삼고자 할 때는 아동용 사회 불안을 사용하는 것이 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Morris & Masia, 1998). 그러나 아동용 사회 불안척도는 불안과 관련한 신체적, 행동적 측면의 측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데 반해 아동용 사회 공포증 및 불안 척도에서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인지적 요인에 대한 측정이 약하다는 점은 두가지 척도 모두 단일 척도만을 사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척도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사회 불안의 생리적,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국내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불안의 측정 도구만이 개발되어 있는 실정이고, 아직까지 사회 불안 증상에 특징적인 구인을 측정해 내는 도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 불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회 불안을 보다 적절하게 측정해 낼 수 있는 도구의 마련이 시급하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두 가지 척도를 기초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척도의 개발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기의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불안의 특징을 밝혀 내고 치료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리라 생각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서울 시내와 경인지역 초등학교 5학년 273명, 중학교 1-2학년 226명, 고등학교 1-2학년 255명을 대상으로 총 754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측정도구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 구성을 위한 측정도구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포괄적으로 측정해 내기 위한 도구의 구성을 위하여 문항 구성의 기초가 되었던 척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용 사회공포증 및 불안 척도(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AI-C): 아동용 사회공포증 및 불안 척도는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 공포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Beidel, Turner, & Morris, 1995). 이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0(전혀 아니다)부터 2(대부분 혹은 항상 그렇다)까지 3점 짜리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각 26문항의 점수를 합쳐서 계산하며, 최고점은 52점이다. 2주 및 10개월 간격으로 시행한 아동용 사회불안 및 회피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5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3-.86이었다.

Beidel, Turner와 Fink의 연구(1996)에서 아동용 사회공포증 및 회피척도는 (1) 주장성과 관련한 두려움 (2) 일반적인 대화 상황에 대한 두려움 (3) 대중 앞에서의 수행과 관련한 두려움 (4) 불안과 관련한 신체적이고 인지적인 증상 (5) 회피적 행동의 5가지 요인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공포증 집단과 주의력 결핍 장애, 행동 장애, 반항성 장애 등의 외현화 장애 집단, 정상 통제군을 각 요인에 따라 비교해 보았을 때, 네 가지 요인에서 사회공포증 집단은 정상 통제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개정판 아동용 사회 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SASC-R): 개정판 아동용 사회불안 척도는 아동의 주관적인 사회 불안의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총 18개의 자기에 관한 진술과 4개의 filler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LaGreca & Stone, 1993). 각 항목은 '자신이 얼마나 그에 해당되는지'를 생각하여 5점 (1점은 '전혀 아니다', 5점은 '항상 그렇다')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요인 분석 결과, 3개의 하위 척도가 도출되었는데, 첫 번째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요인으로 8개 항목이 포함되며, 또래로부터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걱정을 반영한다. 두 번째는 '새로운 상황이나 사람에게 느끼는 사회 불안' 요인으로 6개의 항목이 포함되며, 새로운 상황이나 친숙하지 않은 또래에 대한 사회적 회피 및 불안을 측정한다. 세 번째는 '전반적인 사회불안' 요인으로 4개의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전반적인 사회 불안, 불편감, 억제 등을 반영한다. 각 하위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전반적인 사회 불안, 새로운 자극에 대한 사회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각각, .69, .78, .86이었으며, 또래에 의한 사회측정적 지위 뿐 아니라 아동의 자기 평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구인 타당도가 지지되었다(LaGreca & Stone, 1993).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예비 문항 구성

이상의 두 가지 척도를 번역하여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사회공포증 검사의 구성에 사용하였다. 문항 번역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임상심리 전공의 석사 졸업생이 번역한 문항을 검토하였다.

아동용 사회 공포증 및 불안 척도 26문항과 개정판 아동용 사회불안 척도에서 filler 문항을 제외한 18개 문항 가운데 동일한 상황을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된 문항을 제외하고 총 40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 두 가지 척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공포증상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가게에서 물건을 바꿀 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 윗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끈질기게 물건을 팔려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할 때, 누군가를 지목해야 할 때 등이 불안 및 긴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빈번히 언급되고 있어서 이들 5가지 상황을 새롭게 구성하여 예비 문항에 포함시킨 총 45개의 문항으로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아동용 사회공포증 및 불안 척도에서는 12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 잘 아는 아이들, 잘 모르는 아이들, 어른 각각에 대해 3점 척도에서 불안의 정도를 평정하도록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예비문항에는 이와 같은 구분을 두지 않았으며, 불안의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변별해 내기 위해 5점 척도로 통일하여 시행하였다.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인을 위한 측정도구

아동용 자동적 사고 척도(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CATS): 아동용 자동적 사고 척도(Schniering & Rapee, 2001)는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 총 40문항의 부정적 자기 진술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동은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이러한 생각을 경험하는지를 0점(전혀

없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Likert 척도)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또한 각 10문항씩으로 구성된 4가지 인지적 하위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은 (1) 신체적 위협(physical threat) (2) 사회적 위협(social threat) (3) 개인적 실패(personal failure) (4) 적대적 의도(hostile intent)로 명명되어 있다.

이 가운데 사회적 위협 하위 척도가 사회 불안의 구인을 비교적 잘 반영한다고 생각되어 사회적 위협 하위 척도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위협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92였으며, 전체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6-.79였다.

스펜스 아동용 불안 장애 척도(Spence Children's Anxiety Scale: SCAS): 스펜스 아동용 불안 장애 척도(Spence, 1998)는 분리 불안, 사회 공포증, 강박 장애, 공황장애, 범불안 장애, 신체적 상해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며, 총 38개의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0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3)까지 총 4점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되는 점수를 선택하도록 한 자기 보고식 검사이다.

스펜스 아동용 불안 장애 척도가 아동기의 다양한 불안장애항목들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사회 불안 척도에서 사회 공포증에 해당되는 적절한 구인을 변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하위 척도를 포함시켰다.

각각의 하위 척도는 분리 불안 6문항, 강박 증상 6문항, 공황불안 9문항, 신체적 상해에 대한 두려움 5문항, 범불안 6문항, 사회 공포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70-.73으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 결과 산출된 각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 역시 분리불안 .71, 공황 불안이 .83, 사회 불안이 .79, 신체적 상해에 대한 두려움이 .63, 강박증상이 .71,

범불안이 .81로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

청소년용 자기 지각 척도(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Harter(1983)가 개발한 청소년용 자기 지각 척도(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 SPPA)는 청소년의 유능감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사회적 수용, 친밀한 친구관계, 이성관계, 학업, 운동, 외모, 행동, 직업영역 및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의 총 9개 영역 각각에 대해 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총 45개의 문항 가운데 '사회적 수용'에 해당되는 5문항과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과 관련된 5문항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Harter(1988)에 따르면, 각 하위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74-.95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수용에 대한 내적 합치도가 .72,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에 대한 내적 합치도가 .67로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용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이 척도는 Kovacs와 Beck(1977)이 만든 성인우울검사(BDI)의 아동용 수정판으로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역하고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아동용 우울 척도는 7-17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으며,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아동 스스로 자신의 우울감을 보고하게 하는 자기 보고식 검사로써 각 문항들에 대해 지난 2주간 자신을 가장 잘 기술해 주는 정도를 0점에서 2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수철과 이영식, 1990)에서도 내적 합치도 계수는 .88, 재검사 신뢰도는 .82로 비교적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관찰된 내적 합치도 계수 역시 .84로 양호하였다.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구성

아동용 사회공포증 및 불안 척도와 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45개의 문항에 대해 주축 요인 분석(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스크리 검사(scree test)의 결과, 고유치 1.0이상인 요인의 수가 8개 산출되었다. 그러나 고유치의 하락 정도와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내용을 고려할 때, 5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5개의 요인 수를 지정하여 주축 요인분석을 한 결과 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포함하여 10개의 문항을 제외한 총 40개의 문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5개의 요인을 통한 총 설명량은 50.76%였으며, 각 요인에 속한 문항 및 요인 구조 계수 행렬 및 요인 설명량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 1은 '교단에 나가 반 전체 아이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두렵다'(문항 18), '나는 학교 연극이나 합창, 노래나 무용 발표회에 참여할 때면 긴장한다'(문항 9)등으로 총 10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의 '수행 불안'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2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문항 31), '다른 사람들의 놀림감이 될까봐 걱정한다'(문항 27)등으로 총 9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3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상황을 피한다'(문항 8), '여럿이 모인 자리에 가야 할 때면, 땀이 나거나 가슴이 쿵쿵 뚱다'(문항2)등으로 총 9문항이며, 회피적 행동, 이와 관련한 신체증상 및 사고로 구성된 '회피행동 및 사고'로 명명되었다. 요인 4는 '잘 모르는 아

표 1.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요인구조 행렬표

문	항	내	용	수행 불안	부정적 평가 두려움	회피 행동및 사고	낯선것 두려움	비주 장성					
6.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너무	긴장해서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	.748			
11.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거나	큰	소리로	책을	읽어야	할	때면	긴장한다.	.732		
13.	어떤	집단이나	여러	명이	모인	곳에서	발표를	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731	
18.	교단에	나가	반	전체	아이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두렵다.	.700		
20.	나는	너무	겁이	나서	수업시간에	질문을	잘	못한다.		.643			
14.	내가	뭔가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겁이	난다.	.414		
12.	여러	명이	모인	곳에서	관심이	나에게	집중될까봐	두렵다.		.386			
9.	나는	학교	연극이나	합창,	노래나	무용	발표회에	참여할	때면	긴장한다.	.353		
36.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303			
7.	몇분	이상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229
32.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겁난다.						.890		
34.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걱정한다.				.812		
31.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					.810		
29.	친구들이	나	몰래	내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			.662		
38.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걱정한다.	.598	
27.	다른	사람들의	놀림감이	될까봐	걱정한다.						.541		
39.	다른	사람이	싫다고	할까봐	뭔가를	같이	하자고	하기가	겁난다.		.478		
37.	다른	사람들이	나를	웃음거리로	만든다고	생각한다.					.471		
40.	다른	사람에게	뭔	같이	하자고	부탁하기가	어렵다.				.321		
8.	여러	사람이	모이는	상황을	피한다.						.685		
3.	나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상황에서	두려운	생각이	든다.			.602		
1.	나는	학교	식당이나	매점과	같이	여러	명이	모인	곳에서	식사를	하는게	두렵다.	.544
16.	여러	사람이	모이는	상황에서는	일찍	자리를	뜬다.				.504		
5.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은	너무	두려워서	일찍	집에	가버린다.		.472		
2.	여럿이	모인	자리에	가야	할	때면	땀이	나거나	가슴이	쿵쿵	똥다.	.419	
19.	친한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도	수줍음을	탄다.				.364		
15.	비교적	많은	사람이	모인	집단에	같이	끼어들어	가야	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361

표 1.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요인구조 행렬표(계속)

문항	내용	수행 불안	부정적 평가 두려움	회피 행동 및 사고	낮선 것 두려움	비주장성
10.	여럿이 모이는 곳에 가야 할 때면 뭔가 잘못될까봐 걱정한다.			.323		
17.	잘 모르는 아이에게 말을 걸 때 겁이 난다.				.752	
33.	별로 친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말을 걸 때 겁이 난다.				.548	
4.	잘 모르는 아이와 같이 있게 되면 겁이 난다.				.454	
35.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긴장한다.				.311	
30.	나는 아주 잘 아는 사람과만 이야기한다.				.215	
23.	나는 낯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긴장한다.					.673
24.	나는 끈질기게 물건을 팔려는 사람에게 거절을 하려 할 때 긴장한다.					.639
22.	나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 긴장한다.					.597
25.	내가 누군가를 지목해야 할 때 긴장한다.					.581
21.	나는 가게에서 물건을 바꿀 때 긴장한다.					.444
26.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 걱정이 된다.					.333
28.	같이 있으면 특별히 긴장되는 사람이 있다					.291
	고유치	14.49	2.15	1.84	1.40	1.29
	설명변량(%)	37.86	4.61	3.72	2.50	2.07

처음 만날 때 긴장한다'(문항 35)등의 5문항으로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명명되었다. 마지막 요인 5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 긴장한다', '위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긴장한다' 등의 7문항으로 '비주장성'으로 명명되었다.

신뢰도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5였으며, 각각의 하위 요인에 대해서는 '수행불안' 요인이 .87,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92, '회피행동 및 사고' 요인이 .84,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79, '비주장

성' 요인이 .82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가 아동 및 청소년기의 사회 불안을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

점수의 연령차 및 성차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 점수의 연령(초,중,고)과 성별(남,녀)에 따른 평균 및 표준 편차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 분석(MANOVA)를 시행한 결과, Wilk's Lamda를 지표로 삼았을 때, 연령군의 주효과($F(10, 1488)=4.212$,

표 2. 연령/성별에 따른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 (n=363)	여 (n=391)	전체 (n=754)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n=142)	(n=131)	(n=273)	(n=107)	(n=119)	(n=226)	(n=114)	(n=121)	(n=255)			
한국판 아동 및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	수행 불안 (6.95)	16.19 (7.83)	17.54 (7.40)	16.84 (6.61)	16.09 (7.07)	15.83 (6.84)	15.96 (6.48)	16.44 (5.78)	16.30 (6.09)	16.24 (6.69)	16.58 (6.93)	16.42 (6.81)
	부정적 평가 두려움 (7.85)	16.20 (8.52)	17.58 (8.19)	16.86 (7.62)	16.02 (8.40)	17.58 (8.06)	16.84 (6.07)	15.72 (6.00)	15.42 (6.02)	15.55 (7.25)	16.00 (7.72)	16.41 (7.50)
	회피행동 및 사고 (4.72)	13.58 (5.68)	14.07 (5.20)	13.81 (5.63)	13.79 (5.10)	13.16 (5.36)	13.46 (3.90)	13.38 (4.95)	13.46 (4.86)	13.58 (4.77)	13.34 (4.95)	13.46 (4.86)
	낯선것 두려움 (2.99)	7.35 (3.12)	7.71 (3.05)	7.52 (2.68)	7.58 (3.37)	7.61 (3.05)	7.59 (3.24)	8.26 (2.84)	7.77 (3.03)	7.99 (3.00)	7.70 (3.09)	7.70 (3.05)
	비주장성 (6.21)	13.06 (5.51)	12.73 (5.88)	12.90 (4.98)	12.43 (5.19)	12.70 (5.08)	12.57 (5.02)	14.03 (4.13)	12.86 (4.57)	13.38 (4.94)	13.18 (4.94)	12.77 (5.23)
	총점 (23.79)	66.39 (27.46)	69.64 (25.62)	67.95 (23.35)	65.90 (25.84)	66.88 (24.64)	66.41 (20.97)	67.83 (18.88)	65.17 (19.85)	66.36 (22.76)	66.70 (24.19)	67.19 (23.50)

$p < .001$ 와 성별의 주효과($F(5, 744) = 3.265, p < .01$)가 유의하였으며, 연령 및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F(10, 1488) = 1.179, n$)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 변인에 대한 단변량 분석 결과, 모든 변인에서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하위 척도에 서만 연령차의 경향성을 보여서($F(2, 748) = 2.469, p < .10$),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타당도

아동용 우울 척도와의 상관

아동용 우울척도(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와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상관이 .29-.44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서는 우울의 영향력을 배제한 척도의 타당화가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우울과의 상관을 통계적

으로 통제한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와 기타 타당화 척도와의 부분 상관을 산출하였다.

사회적 위협에 관한 자동적 사고 척도와의 상관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 및 두려움은 사회적 상황에 처했을 때 발생하는 자동화된 사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와 사회적 위협에 관한 자동적 사고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 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 불안 전체 척도 및 하위 척도와의 상관계수는 .45-.76 사이였으며, 상당히 높은 상관을 보였다.

스펜스 아동용 불안 장애 척도(Spence Children's Anxiety Scale: SCAS)와의 상관

아동기의 다양한 불안장애 가운데 예비문항에서 구성한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가 사회 불안에 특징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반

표 3.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타당도를 위해 사용된 검사간의 상관행렬

	아동용 자동적 사고척도 (사회적 위협)	스펜스 아동용 불안 척도							자기지각 유능감 척도		우울척도	
		공황 불안	분리 불안	사회 불안	신체 불안	강박 증상	범불안	총점	사회적 수용	자기 가치감		
한국판 아동 및 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	수행불안	.36**	.30**	.28**	.53**	.27**	.28**	.35**	.43**	-.26**	-.03	.39**
	부정적 평가 두려움	.69**	.35**	.42**	.60**	.29**	.34**	.48**	.53**	-.28**	-.11**	.44**
	회피행동 및 사고	.49**	.31**	.29**	.41**	.18**	.24**	.30**	.37**	-.261**	.01	.39**
	낮선 것 두려움	.29**	.25**	.23**	.41**	.21**	.28**	.34**	.37**	-.29**	-.10**	.29**
	비주장성	.38**	.32**	.35**	.49**	.28**	.34**	.43**	.47**	-.19**	-.02	.32**
	총점	.58**	.38**	.39**	.61**	.31**	.36**	.47**	.54**	-.31**	-.06	.44**

**p<.01

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스펜스 아동용 불안장애 척도의 각 하위 척도와 한국판 아동·청소년 사회 불안 척도와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우울 점수를 통제한 각 하위 척도와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와와의 부분 상관은 분리 불안 하위척도와와의 상관이 .23-.42, 강박 장애 하위 척도와와의 상관은 .24-.36, 공황 장애 하위 척도와와의 상관은 .25-.38, 신체적 상해에 대한 두려움 하위 척도와와의 상관은 .18-.31, 범불안 장애 하위 척도와와의 상관은 .30-.48이었다. 이 가운데, 사회공포증 하위척도와와의 상관은 다른 하위 척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41-.61의 상관을 보였다.

자기 지각 유능감 척도와와의 상관

자기 지각 유능감 척도 가운데 사회적 수용에 대한 유능감을 측정하는 하위 척도와와의 상관은

-.19 - -.31로 우울의 영향력을 배제한 경우에도 모두 유의하였으며,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하위 척도와와의 상관은 -.03 - -.11로 우울의 영향력을 배제하면 대부분 사회 불안의 하위 척도와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가 비교적 뚜렷한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하위 척도가 내적 합치도도 높은 척도임을 보여 주었다.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는 수행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회피행동 및 사고,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 비주장성의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내적 합치도 역시 .95로 아동 및 청

소년기의 사회 불안을 측정하는 데 상당히 신뢰로운 도구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요인구조는 개정판 아동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LaGreca & Stone, 1993)의 (1)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2)전반적인 사회적 회피 및 불안 (3)낮선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사회적 회피 및 불안의 하위 요인이나 아동용 사회 공포증 및 불안 척도(Social Phobia and Anxiety Scale for Children, Beidel, Turner, & Morris, 1995)의 (1) 자기 주장성 (2) 전반적인 대화에 대한 두려움 (3) 대중 앞에서의 수행 (4) 신체적, 인지적 증상 (5) 행동적 회피라는 요인을 모두 반영하여 포괄적으로 사회 불안을 측정하는 것이며, 각 척도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 불안과 관련된 인지, 행동, 생리적 반응을 포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비교적 DSM-IV의 기준에 부합되는 다양한 범주의 사회 불안 증상을 반영하는 측정도구로서 기존에 사용되던 주요한 두 가지 자기 보고식 검사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를 통해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은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사회 불안 증상의 보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불안 증상의 성별 비교에서 일관되게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은 사회 불안을 보고하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Inderbitzen-Nolan & Walters, 2000; LaGreca & Lopez, 1998; Morris & Masia, 1998). 이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낯선 자극에 대한 두려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불안을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이러한 성차가 사회 불안 총점이나 각각의 하위 척도에 대해서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 가능성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가 외국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와 동일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표본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한정되어 실시되었으므로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의 특수한 현상일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서구 문화권에서는 여성에게 특히 타인의 평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남, 녀 모두에게 사회적인 상황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남들의 평가나 시선을 염두에 두도록 교육되는 문화적 차이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성차를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연구 결과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 불안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기는 어려우며, 비교 문화적인 연구를 통해 성차의 현상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 결과,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는 기타 불안 장애에 비해 사회불안에 특히 민감한 변별 타당도를 지니며, 유능감의 경우도 사회적 수용에 대한 유능감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반면,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과는 유의한 상관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사회적 기능에서의 유능감과 관련된 구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사회 불안 집단이 우울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기는 하지만 불안증상에 비해 우울증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여서 사회 불안이나 우울 모두 내현화된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증상임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해 본다면,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는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신뢰도 및 타당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기보고식 검사의 구성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 불안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좀 더 보완되어야 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이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던 문항들을 번역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회 불안을 보이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나 이 때 떠오르는 생각, 신체적 반응, 행동의 측면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반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척도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의 타당화 자료로 활용된 척도들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를 타당화하는 자료로써 제한점을 갖는다. 그러나 국내에서 아동 및 청소년기의 사회 불안이라는 구인을 타당화하는 데 활용할 척도의 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사회 불안'의 구인을 확인해 보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외국의 척도들을 번안하여 아동 및 청소년기 사회 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셋째, 연구의 대상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한정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성차나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 전체에게로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표본 집단을 선발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 불안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 포함된 아동 및 청소년은 임

상군을 대상으로 얻어진 결과는 아니므로, 본 척도의 보다 광범위한 활용을 위해서는 임상집단에서도 적절하게 사회 불안 장애를 보이는 집단을 변별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는 심리 측정적 요소 가운데 재검사 신뢰도에 대한 측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기의 사회 불안이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판 아동 및 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가 자기 보고식 검사이므로 실제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행동 관찰을 통한 타당화 작업이 요구되며, 이들 척도가 임상 집단을 얼마나 적절하게 변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남재 (1999). 대인불안집단의 자기 관련적 정보 회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 56-68.
- 김은정, 원호택 (2000). 안전행동의 감소가 사회 공포증 집단의 불안과 부정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8, 409-426.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 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5.
- 조용래 (1999). 역기능적 신념과 사회 공포증상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 17-36.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 Washington, DC: Author.
- Beidel, D. C. (1991). Social phobia and overanxious disorder in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 545-552.
- Beidel, D. C., Turner, S. M., & Fink, C. M. (1996). Assessment of childhood social phobia: construct, convergent, and discriminative validity of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AI-C). *Psychological Assessment*, 8, 235-240.
- Beidel, D. C., Turner, S. M., & Morris, T. L. (1995). A new inventory to assess childhood social anxiety and phobia: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7, 73-79.
- Clark, D. B. (1993).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in adolescent alcohol abusers*. Paper presented at the Anxiety Disorders Association of America Annual Convention, Charleston, SC.
- Davidson, J. (1993). *Childhood histories of adult social phobias*. Paper presented at the Anxiety Disorders Association of American Annual Convention, Charleston, SC.
- Essau, C. A., Conradt, J., & Peterman, F. (1999). Frequency and comorbidity of social phobia and social fears in adolescent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7, 831-843.
- Harter, S. (1988). *Manual for the Self 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Denver: University of Denver.
- Inderbitzen-Nolan, H. M., & Walters, K. S. (2000).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Normative data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 7-17
- Kovacs, M., & Beck, A. T. (1977). An empirical-clinical approach toward a definition of childhood depression. In J. G. Schulterbrandt & A. Raskin(Eds.). *Depression in childhood: Diagnosis, treatment and conceptual models*, (pp.1-25). New York : Raven Press.
- LaGreca, A. M., & Stone, W. L. (1993).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Factor structure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 17-27.
- Last, C. G., Hersen, M., Kazdin, A. E., Orvaschel, H., & Perrin, S. (1991).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8, 928-934.
- Morris, T. L., & Masia, C. L. (1998).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Concurrent validity and normative data.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452-458.
- Schneier, F. R., Johnson, J., Hornig, C. D., Liebowitz, M. R., & Weissman, M. M. (1992). Social phobia: Comorbidity and morbidity in an epidemiological samp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9, 282-288.
- Schniering, C. A., & Rapee, R. M. (2001). *Development & validation of a measure of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The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Spence, S. H. (1998). A Measure of anxiety symptoms among children.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6, 545-566.
- Strauss, C. C., & Last, C. G. (1993). Social and simple phobias in childre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7, 141-152.
- Wittchen, H. U., Robins, L. N., von Zerssen, D., Krieg, C., & Zaudig, M. (1992). Lifetime and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six-month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s in the
Munich follow-up study.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241, 247-25.

원고접수일 : 2001. 12. 15.

수정원고접수일 : 2002. 3. 18.

게재결정일 : 2002. 4. 3.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Hey-Shin Moon

Kyung-Ja Oh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the Korean version of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confirm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Grounded on translations of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LaGreca & Stone, 1993) and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Beidel, Turner, & Morris, 1993), the Korean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as constructed and psychometric properties were evaluated. Participants were 753 students(255 in 5th grade, 221 in 7th through 8th grade, and 273 in 10th through 11th grade). The results of a factor analysis indicate that the scale consists of 5 factors: Performance anxiety,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voidance, Fear of new situation or unfamiliar peer, and Nonassertiveness. Internal consistencies for its subscales were ranged .79-.92, and construct validity was good. Both age and gender difference of scores on the Korean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not significant. On the basis of this resul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instrument were discussed.

Keywords : social anxiety scale, child & adolescents, reliability, validity